



한국

설문 결과, 한국의 비영리단체(NGO)는 운영비 예산의 1.7%를 IT분야에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아시아 지역 평균 3,4%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비율입니다.

그럼에도, 비영리단체(NGO)의 30%는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진행 중이라고 답하였으며, 가장 필요한 교육 주제로는 '비영리의 클라우드 업무환경 전환'이라고 답하였습니다.

비영리단체(NGO)의 41%는 클라우드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하였고 결정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기술과 지식의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.

비영리단체(NGO) 세 곳 중 한 곳은 이해관계자 (회원, 후원자, 고객 등)의 정보기록을 위해 스프레드시트와 문서 편집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. 도구를 활용하는 단체 중 45%는 문서기록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았고, 40%의 단체는 이 문서들이 각 단체가 진행하는 공익활동의 성과와 영향력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습니다.

주요 통계

28%



[보안] 단체 중 28%가 로그인시 다중 인증을 사용

80%



[온라인 활동] 단체 중 80%가 활동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보유

1.7%



[예산] 운영 예산 중 평균 1.7%가 IT에 사용됨

34%



[보안] 단체 중 34%가 모든 중요 정보 시스템에 대해 자료 백업을 보관

23%



[온라인 활동] 단체 중 23%가 웹사이트에서 클라우드 펀딩 혹은 온라인 커머스 도구 활용중

24%



[내부평가] 직원 중 24%가 소속된 단체의 IT 활용에 만족함

23%



[보안] 단체 중 23%가 직원에게 보안 교육을 제공

34%



[보안] 단체 중 34%가 그 어떤 기기에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확신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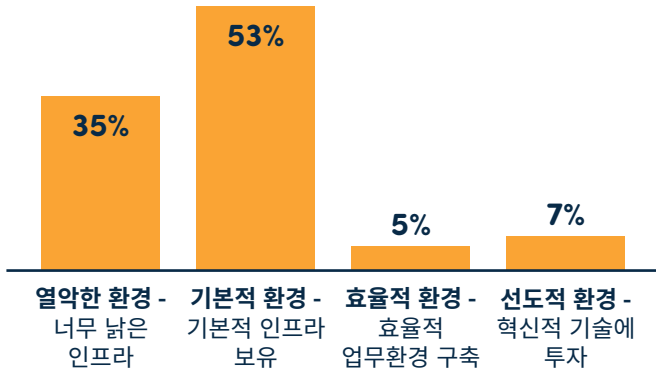
최우선 기술적 과제

01	직원 및 봉사자의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	
02	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마케팅 활용 개선	
03	웹사이트 개선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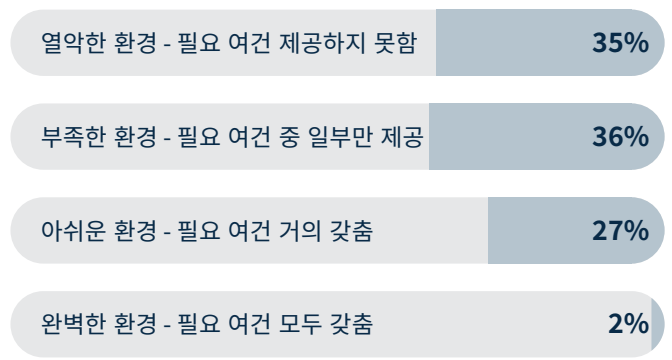
최우선 교육 과제

01	비영리 클라우드 협업 환경의 전환 (M365,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)	
02	업무 프로세스 및 데이터 추출 자동화	
03	우리 단체 IT 현황 자가진단 및 강점과 약점 파악	

전반적 기술 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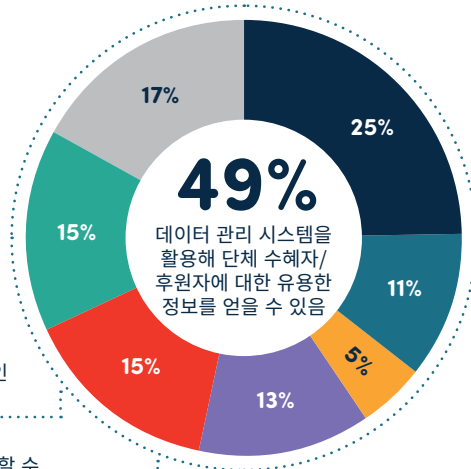


원격 업무 환경



주요 데이터 관리 시스템 (후원자, 자원활동, 이용자 정보 기록과 관리 용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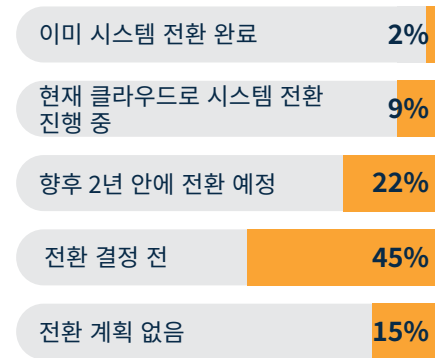
-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/ 엑셀
- 구글 문서 / 스프레드시트
- 자체 개발 시스템
- 종이 문서
- 시판 시스템
- 정부 제공 시스템
- 잘 모름



34%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함

44% 시스템을 활용해 단체 활동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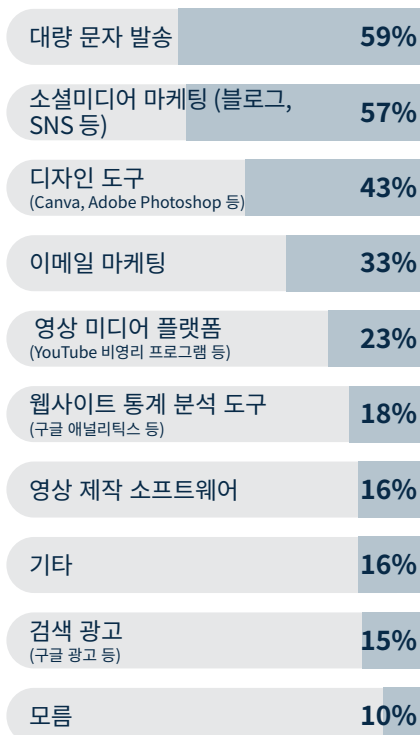
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 여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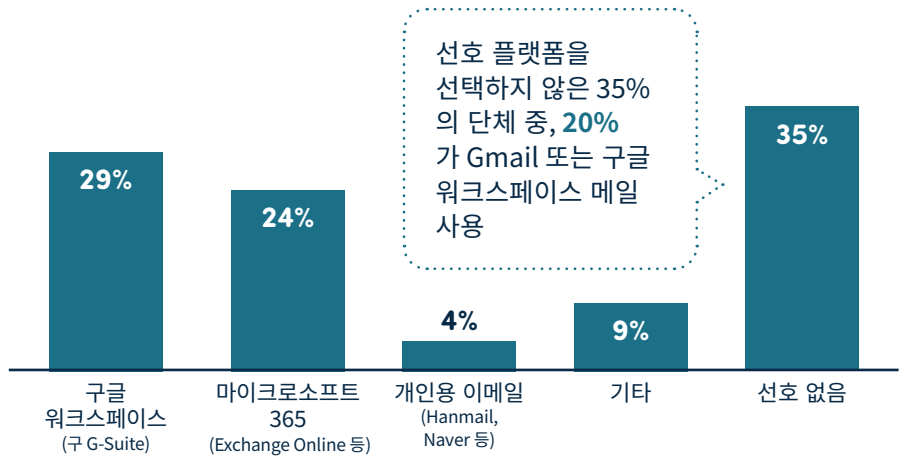
클라우드 전환하지 않는 주 이유:

- » 클라우드 활용 기술/역량 취약
- » 단체 활동 계획의 우선순위가 아님
- » 기존 시스템 이전시 비용 우려

디지털 마케팅 도구



협업 플랫폼 선호도



인터넷 속도 및 안정성

